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확정...8년 염원 결실

2029년 개교 추진 100명 입학정원
2030년 교육 시작 15년 의무복무
남원의료원 500병상 국가병원 전환
공공의료 교육·연구·임상거점 육성

남원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지가 남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설립준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립의전원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로 최종 결정했다. 국립의전원은 남원의료원 인근 계획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18년 정부가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남원에 설립하기로 결정한 이후 8년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이어가는 동시에 국립의전원 설립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립의전원은 입학정원 100명의 4년제 대학원대학으로,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과정 개시를 목표로 추진된다. 졸업 후에는 행정기관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복무하며, 국가는 교육부터 수련·경력관리, 공공의료 현장 배치까지 전주기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립의전원 설립과 함께 남원의 의료 환경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남원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전환하고, 약 500병상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심·뇌혈관질환과 치매 등 의료기능을 특화해 지역·공공의료 임상교육과 지역 거점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남원시는 그동안 국립의전원 설립에 대비해 월락동 일원 예정부지를 확보하고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이어왔다.

특히 기반시설 전문위원회에서도 남원 계획부지는 교육환경과 사업 추진 가능성, 정책적 연속성, 장기적인 확장·지역 연계 측면에서 국립의전원 캠퍼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 확정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1일 도청에서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 확정에 따른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양충모 남원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자치도>

스를 조성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남원의료원과 인접해 지역의료 교육과 임상실습을 연계하기에 유리하고, 향후 연구기능 강화 등 캠퍼스 확장 여건도 갖춘 것으로 검토됐다.

남원시는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을 중심으로 교육과 연구, 임상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정부 정책과 연계해 보건·간호 분야 교육기능과 공공·지역의료 분야 연구기능의 단계적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의 필수·전문 진료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병·의원, 보건소, 돌봄서비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의료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의료AI와 Physical AI, 의료로봇 등 첨단기술을 지역·공공의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대학·병원·연구기관·기업 등과 협력해 미래 의료 연구·실증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자와 의료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의료서비스를 현장에 적용하고 효과를 검증해, 향후 국가정책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공공의료 정책의 실증·확산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남원시는 앞으로 정부의 후속 추진 과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립의전원 예정부지 확보와 도시관리계획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 확보와 우수한 교수·의료인력 확보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남원을 대한민국 지역의료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 공공의료 거점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미니 인터뷰> 이원택 지사 “이제 ‘어디 설립’서 ‘어떻게 제대로 교육’ 고민할 때”

남원 중심 실질적 교육기반 마련
도내 의료기관 연계 임상교육 강화
정부·지역 공조로 개교까지 준비

“무려 8년을 기다리만큼 이제는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원택 도지사는 1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남원 설립과 관련, “이번 소재지 확정 의 가장 큰 의미는 지난 8년간의 준비가 본격적인 설립 단계로 전환됐다는 것이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제 논의의 중심도 ‘어디에 설립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설립하고 제대로 교육할 것인가’로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번 결정의 의미를 정책의 연속성과 지역의 준비에서 찾았다.

2018년 남원 설립 결정 이후 법안 폐기와 논의 중단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역이 한마음으로 설립 준비를 이어왔다는 설명이다. 그는 “도민과 남원시민, 지역 정치권과 관계 기관이 포기하지 않고 힘을 모아주셨다”며 “법적 근거와 설립 소재지가 마련된 만큼 이제는 준비를 구체적인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면 과제로는 정부 기본계획과 설계 등 후속 절차의 차질 없는 추진을 손꼽았다.

또 ▲설계·건축 등 설립절차의 차질 없는 추진 ▲남원의료원 기능과 교육역량을 아우르는 실질적 교육기반 마련 ▲개교까지 정부와 지역의 긴밀한 공조를 앞으의 과제로 제시했다.

교육 방향에 대해서는 남원 내 기반 확보를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립의전원의 중심은 분명히 남원”이라며 “학교가 남원에 설립되는 만큼 기본적인 교육과 임상실습이 이뤄질 여건도 남원에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남원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전환, 약 500병상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심·뇌혈관질환·치매 등 기능 특화를 통해 지역·공공의료 임상교육 및 지역 거점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9월 28일 전북도와 남원시, 전북대학교병원·원광대학교병원·예수병원·남원의료원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도 구체화한다. 남원의료원을 중심으로 도내 의료기관은 물론 국립중앙의료원 등 국가의 우수한 의료자원을 연계해 학생들이 다양한 임상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교육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장기적인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을 축으로 교육·연구·임상과 지역·필수의료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며 “도내 의료기관과 전국 공공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체계를 갖춰 남원을 대한민국 공공의료 교육·연구·임상의 허브로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택 지사는 끝으로 “소재지 확정으로 오랜 노력의 결실이자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개교하는 날까지 책임 있게 준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정철 기자

道, 농산물 출하철 판로 선점 ‘가격 방어’ 총력

전북도가 가을철 농산물의 출하 집중에 따른 가격 하락을 예방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판로 확대에 나선다.

도는 10월부터 12월까지 쌀·콩·사과·배 등 주요 농산물을 대상으로 정부수매물량 추가 확보와 대형마트·농협·온라인 등 유통망 확대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품목별 생산량과 가격 전망을 고려해 수확기에 집중되는 물

량의 판매처를 미리 확보하고,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 등에 따르면 올해 도내 벼 생산량은 53만 3,000톤으로 전년보다 1.8%, 논콩은 3만 8,000톤으로 0.9%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콩은 정부 수매물량 감소로 민간 유통물량이 늘면서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

과수의 경우 사과 생산량은 3만

8,000톤으로 전년보다 46.1% 증가하고, 배는 1만 7,000톤으로 35.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배는 수확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특정 시기에 출하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도는 쌀 1만 톤과 콩 2만 톤의 정부수매물량 추가 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농협 등이 수확기 농산물을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발전기금 수매자금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쌀은 농협과 민간 미국종합처리장(RPC) 등과 협력해 대형마트와 하나로마트 판매를 확대한다. 콩은 식품가공업체와 생산자 간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국산 콩기름을 월 360L에서 1,920L까지 늘려 콩 원물 소비를 약 16톤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사과와 배는 농협중앙회와 협력해 10월부터 12월까지 대형마트 기획판매를 추진한다. 사과 80톤, 배 800톤 규모의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교육청과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을 통한 판매도 추진한다.

온라인 판매도 강화한다. 전북생생장터에서는 10월 한 달간 사과·배와 콩을 대상으로 특별기획전을 진행한다. 사과·배 기획전은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콩 원물과 가공식품 할인행사는 6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하며, 각각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쿠팡과 우체국물 등 외부 온라인 유통채널과의 협력을 확대해 소비자들이 전북 농산물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제53회 고창 모양성제

전통을 잇고, 미래를 열다

10. 15. 목 - 10. 19. 월

고창읍성일원

전야제 10. 15. 목

개막식 10. 16. 금

MZ 페스타 10. 18. 일

폐막식 10. 19. 월

천록담 김다나

이찬원 이재훈 COOL

국카스텐 이승기

남진 김미주

주최/주관 고창군

후원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도, 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10월 한 달간 합동단속 추진

해상·육상 불법조업 집중 단속
타 시·도 어선 도계 위반 중점

전북도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불법 어업을 근절,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10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 서해 어업관리단,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과 함께 불법어업 집중관리에 나선다고 1

일 밝혔다.

이번 집중관리는 해양수산부 서해 어업관리단 주관으로 도와 3개 시·군이 합동으로 추진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과 시·군 어업지도선 3척, 어업감독공무원 20여 명을 투입해 해상과 육상에서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어선의 불법조업 ▲허가 외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제장 위반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특히 타 시·도 어선이 전북 해상 경계를 넘어 불법조업하는 도계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을 보호하고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위법행위는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엄

격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어업허가 정지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가을철은 연중 어업 생산량이 많은 시기로 불법어업 발생 우려도 커지는 만큼 집중단속을 통해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회복·증강해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포럼, 지속가능한 지역성장 해법 찾는다

국내의 전문가 300여명 머리 맞대
블루카본·헵트 산업화 가능성 논의
재생에너지 성장동력화 모색

전북도는 1일 부안 소노벨 변산에서 '제3회 전북포럼'을 개최하고, 전북의 자원을 지속가능한 지역성장의 새로운 가치와 기회로 연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도와 부안군이 공동 주최하고 전북연구원과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전문가와 관계기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지속가능한 지역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열다'를 주제로 기조·특별연설과 라운드테이블, 주제별 세션 등을 통해 전북의 미래 성장전략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환영 만찬에는

이원택 도지사가 참석해 국내외 연사와 전문가들을 환영하고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 지사는 전북이 보유한 농생명·생태자원과 새만금, 재생에너지 등 지역의 강점을 세계와 연결해 새로운 성장 기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1일 본행사는 고정삼 경제부지사의 개회사와 권익현 부안군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기조·특별연설, 라운드테이블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연설에 나선 전의찬 세종대학교 교수는 전북이 가진 자연·산업자원의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특별연설에서는 마헤쉬 프라단(Mahesh Pradhan) 유엔환경계획(UNEP) 동아시아해양조정기구 협력관이 블루카본을 활용한 탄소중립 실천

과 생태자원의 경제적 가치 창출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매리언 맥넵(Marion McNabb)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 대마연구소 소장은 미래 바이오 분야에서 헵트가 가진 가능성과 산업화 방향을 소개했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국내외 전문가와 고정삼 경제부지사 등이 참여해 지속가능한 지역성장을 위한 지방정부의 전략과 전북의 고유한 자원을 지역경제와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로 연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오후에는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주제별 세션이 이어졌다. 세션 I에서는 '기후위기와 지방소멸 극복을 선도하는 전북형 블루 이코노미 모델'을 주제로 해양 탄소중립의 국제적 흐름과 블루카본의 가치, 해양생태계 기반 경제모델의 발전 가능성을 다뤘다.

세션 II에서는 '글로벌 생명경제의 성장 동력, 새만금 헵트'를 주제로 주요국의 헵트산업 동향과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산업화 전략을 논의했다.

아울러 새만금 정책포럼과 전북 물포럼, 에너지 정책포럼 등 도정 핵심 현안과 연계한 세션도 마련해 새만금과 물, 재생에너지 등 전북의 주요 자원을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과 향후 과제를 모색했다.

이에 대해 고정삼 경제부지사는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북이 가진 고유한 자원과 역량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오늘 제시된 국내외 전문가들의 제안과 논의를 바탕으로 전북의 강점을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한병도 “전북 서울대 입학생 42명…6년 중 최저”

수도권 출신 68.2% 쏠림 심화
강남구 295명…전북의 7배



한병도 의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2026년도 서울대 신입생의 출신고교 조사결과, 전북지역 출신고의 입학생은 42명으로 서울 강남구 295명의 1/7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공개했다.

한 의원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대학교 ‘신입생 지역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6학년도 서울대 수시·정시 최종등록자 3,673명(검정고시·외국 소재 고교 출신 제외) 가운데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고교 출신은 2,504명(68.2%)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입생 3명 중 2명 이상이 수도권 출신인 셈으로, 2021학년도(63.4%)보다 4.8%포인트 높아졌다.

서울대 최종등록자는 2021학년도 3,303명에서 2026학년도 3,673명으로 370명 늘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출신은 2,093명에서 2,504명으로 411명 늘어 전체 증가 폭을 웃돌았다. 늘어난 입학 인원을 수도권 이 모두 가져간 셈이다. 반면 비수도권 출신은 1,210명에서 1,169명으로 41명 줄었고, 비중은 36.6%에서 31.8%로 낮아졌다.

시도별로는 경기 지역 고교 출신이 738명에서 1,014명으로 276명(37.4%) 늘어 전체 증가분의 4분의 3가량(74.6%)을 차지했다. 서울 출신도 1,169명에서 1,337명으로 14.4% 늘었다.

특히 2026학년도 서울 강남구 소재 고교 출신 신입생은 295명으로 6년 중 가장 많았다. 2021학년도(195명)보다 51.3% 늘었고, 전체 신입생의 8.0%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가운데 강남

구보다 서울대 신입생을 많이 배출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강남구 출신은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대전(149명)의 약 2배, 부산(123명)의 2.4배였고, 광주·전북·전남을 합친 호남권(171명)보다도 1.7배 많았다.

강남·서초·송파, 이른바 ‘강남3구’ 출신은 486명(13.2%)으로 역시 6년 중 최다였다.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영남권 5개 시도 출신을 모두 합한 493명과 불과 7명 차이였다. 2021학년도만 해도 영남권 출신(547명)이 강남 3구(362명)보다 185명 많았지만, 2026학년도에는 그 격차가 7명으로 줄었다. 강남 3구 출신은 호남권의 2.8배에 달했다.

권역별로 보면 호남권 출신은 2021학년도 210명에서 2026학년도 171명으로 18.6% 줄었다. 전북은 69명에서 42명으로 39.1% 줄어 6년 중 최저를 기록했고, 전남도 57명에서 35명으로 38.6% 감소했다. 영남권은 547명에서 493명으로 9.9% 줄었으며, 부산(123명)과 대구(131명)는 6년 중 가장 적었다. 비수도권에 사는 충청권(354명→407명)과 제주(39명→44명)만 늘었을 뿐, 영남·호남·강원권은 모두 감소했다.

한 의원은 “서울대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국립대학법인이어서 지역 간 교육 기회의 균형을 이룰 책무가 있다”며 “지역균형발전 등 기존 선발 제도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전형별·지역별로 전면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 의원 공동 기자회견 “국립의원 설립 남원 확정 환영”

2018년 발표 8년 만 설립 확정

남원의료원·국립중앙의료원 통합
“국정과제·정부 성공 기반 될 것”

보건복지부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원) 설립준비위원회는 1일 국립의원원을 전북 남원에 설립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립의원원 건립이 확정된 지난 2018년 4월 당정협의를 거쳐 국립공공의대의 남원 설립 방침을 발표한 지 8년 만이다.

국립의원원은 오는 2030년부터 100명 내외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또 현재 전북도립병원인 남원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과 통합되어 국가병원으로 전환되며, 병실규모는 현재보다 대폭 확대된 500병상 이상으로 증축된다.

교육은 교육과정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구체적 내용이 확정될 예정으로, 남원의료원이 국립중앙의료원과 통합되면 남원 국립중앙의료원과 공

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국립의원원은 2029년 개교해 2030년 첫 입학하고 교육이 시작된다.

국립의원원은 공공의료를 담당할 의사를 국가가 직접 양성하는 기관이다.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응급과 분만, 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의전원 설립을 위해 지난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으며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지난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법의 제정을 위해 당정과 긴밀히 소통하고 동료 위원들을 한 사람씩 만나 설득해 왔으며, 법 통과 이후에도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설립 준비 상황을 점검해 왔다.

박 의원은 이날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먼저 국립의원원 남원설립 확정을 환영한다.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더



박희승 의원을 비롯한 전북 국회의원들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립의원원 남원설립 확정과 관련, 환영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의원실>

내실 있는 국립의원원이 되도록 하겠다”며 “국립의원원 설립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의 핵심사업으로, 이 사업의 성공이 곧 국정과제의 성공이고, 이재명 정부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 안호영·김의겸 의

원이 함께했다.

한 원내대표는 “매년 100명의 공공의료 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하게 되었다”며 설립에 필요한 예산이 제때 반영되고 추가 임금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민주당이 앞장서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의원원과 국립병원이 들어설 남원은 전북과 전남광주, 경남이 만나는 남부권역의 한가운데다.

<본사 인사>

- 의원면직
△ 구경일

-2026년 9월 28일자-

전주와 전남광주, 진주와 순천이 1시간, 대전과 대구, 여수와 목포가 1시간 30분 거리이며, 두 시간이면 부울경을 포함한 영호남·충청 대부분이 닿는다. 국립의원원과 국가병원이 한곳에 서면 교육과 수련, 진료와 연구가 순환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박 의원은 “앞으로 부지확보와 설계,

교육과정 마련, 교수 확보와 수련병원 준비가 개교 전까지 마무리돼야 한다”며 “전북 국회의원들은 당과 정부, 지방정부와 계속 협력해서 준비 과정을 함께 점검하고, 국립의원원이 성공적으로 설립되고 지역의료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타면 착, 안전도착

올바른 안전띠 착용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켜 주세요!

차 타면 꼭 지켜야 할 안전띠 안전수칙

택시 탑승시

뒷좌석 안전띠는

필수!



어린이도

안전벨트 필수

착용해야 해요!



낮은 속도에서도

뒷좌석에도,

안전띠 꼭 착용 해 주세요!



전북상협,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 확정 환영

“지역 공공의료의 새로운 전기… 든든한 의료안전망 구축”

전북지역 상공인들이 지난 1일 국립 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의 남원 설립 확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지역 공공의료의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전주·익산·군

산·전북서남·김제상공회의소) 회장단은 성명을 통해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인구 감소와 의료 공백으로 위기를 겪는 지방에 필수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매우 뜻깊은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특히 남원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전환하고 약 500병상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국립의전원의 지역·공공의료 임상교육 기반과 지역 거점병원

기능을 함께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협의회는 남원이 전북 동부권은 물론 경남·경북 서부권까지 아우르는 광역 의료거점으로서 우수한 접근성과 확장성을 갖춘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립의전원과 지역 의료기관이 긴밀히 연계해 전북을 넘어 인접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정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은 “이제 중요한 것은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이 실질적인 지역 공공의료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일”이라며 “남원 중심의 교육과정과 지역 내 임상실습·수련 기반을 충실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의전원이 남원이라는 든든한 기반위에서 전국의 의료취약지를 살리는 우수한 의료인력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사진=전북농협>

NH농협 진안군지부·백운농협, 의료 서비스 ‘농촌왕진버스’ 운영

NH농협 진안군지부(지부장 한정호)와 백운농협(조합장 김연태)은 진안군 백운면과 성수면 지역 농업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농촌왕진버스’ 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농촌왕진버스에는 원광대학교병원 의료진이 참여해 지역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한방진료 및 협력기관에서 구강검진, 검안 및 돋보기 지원, 만 60세 이상 농업인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보험 무료 가입 등 의료·복지 서비스를 진행했다.

특히 평소 의료기관 이용이 불편했던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가까운 현장에서 제공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의료복지

향상과 건강관리 지원에 큰 도움이 됐다.

한정호 지부장은 “농촌왕진버스가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건강지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농촌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연태 조합장은 “지역 농업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가까운 현장에서 제공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의료복지

/최준호 기자

국민연금 ‘AI 행정협업 플랫폼’ 개시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 민원응대 신속 지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정부의 ‘AI를 활용한 공공·행정 혁신’ 국정 기조에 발맞춰, ‘AI 행정협업 플랫폼’을 1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AI 행정협업 플랫폼’은 전국 3,500여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복지(장애정도심사·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및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민원응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플랫폼에 입력하고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지원 서비스이다.

장애정도심사 등 복지업무를 현재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잦은 순환보직 등으로 인해 숙지

하기 어려운 세부기준 등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민연금이 보유한 전문지식과 AI 기술을 결합한 맞춤형 업무지원 플랫폼을 만들어왔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은 실무자들의 검증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4주간의 베타테스트를 실시해 답변의 정확성과 사용자 편의성 등을 개선한

후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김성주 이사장은 “이번 AI 행정협업 플랫폼 구축은 전국 어디서나 국민이 신속·정확한 복지서비스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공공 AI 혁신의 시작”이라며, “현장 공무원의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대국민 서비스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농진청, 토종닭 활용 ‘프리미엄 달걀’ 공급 추진

생산방식·품질 중시 소비 흐름 맞춰 상품화 지원

최근 동물복지·친환경 등 생산방식과 품질을 중시하는 달걀 소비 흐름에 맞춰 우리 고유 자원인 토종닭을 활용한 프리미엄 달걀 공급을 추진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자체 개발한 달걀 생산용(산란용) 토종닭을 활용해 프리미엄 달걀의 생산·유통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한국토종닭협회와 씨닭 공급망을 마련하고, 경북 영양군과 농가 사육부터 달걀 유통까지 연계해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고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국내 토종닭 산업은 여름철에 소비가 집중되는 백숙과 삼계탕 등 고기용을 중심으로 자리 잡아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토종닭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여러 토종닭 계통을 단계적으로 교배하고 산란능력을 검증해 달걀 생산에 알맞은 교배 방법을 확립했다.

사육시험 결과, 산란용 토종닭은 최고 산란율 96%를 기록했으며, 생후 64주에도 산란율 70% 이상을 유지해 시간이 지나도 꾸준히 달걀을 생산하는 능력을

확인했다.

달걀 평균 무게는 56그램으로 시장에서 유통되는 엘(L, 기존 대란) 규격에 해당했다.

아울러 달걀 성분 분석 결과에서는 일반 갈색 달걀과 비교해 노른자 비중과 단일불포화지방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성과는 고기용 중심이던 토종닭의 활용 범위를 달걀 생산으로 넓히고, 이를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연결하기 위한 보급체계를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러한 연구 성과가 실제 농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씨닭 공급부터 사육·품질관리·유통까지 이어지는 보급체계를 구축하고, 프리미엄 달걀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토종닭협회와 지난 4월 29일 업무협약을 맺고, 씨닭을 생산·공급할 거점 농장 선정과 운영 방식 등을 협의하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산란용 토종닭 종자와 사육 기술을 지원한다. 협회는 거점 씨닭 농장 선정과 생산 농가 조직화, 달걀 유통망 확보 및 공동상표 개발 등을 추진한다.

지방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해 경북 영양군의 경우, 산란용 토종닭을 지역의



농촌진흥청은 자체 개발한 달걀 생산용 토종닭을 활용해 프리미엄 달걀의 생산·유통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사진=농촌진흥청>

새로운 소득 품목으로 육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30년까지 소규모 산란계 농가 50호를 육성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달걀을 선별·포장해 출하하는 공공형 유통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종자와 사육 기술 지원, 농가 현장시험 등 기술 지원으로 사업 안착을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농가 현장 실증을 통해 검증한 생산성과 경제성, 달걀 품질 등을 토대로 표준 사육 기술과 품질 기준을 마련한다. 산란능력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되 토종닭 달걀의 고유 특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량을 추진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과 차별화된 상품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조영민 원장은 “이번 산업화는 이미 개발한 산란용 토종닭을 실제 농가 생산과 소비 시장으로 연결하는 단계”라며 “씨닭 생산부터 농가 사육과 달걀 유통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보급체계를 마련하고, 농가 현장에서 생산성과 경제성을 충분히 검증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정읍 품목별연구회 31곳, 한 해 농업 성과 한자리에

연구회별 우수사례 공유 회원 간 교류 강화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31개 품목별 연구회의 한 해 활동을 돌아보고 농업 현장에서 얻은 기술과 경험을 나누는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센터는 지난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제2차사 대강당에서 연구회 회원과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2회 정읍시 품목별연구회연합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연구회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회원 간 교류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인 29일에는 연구회별 활동 성과를 전시하고 발표하는 경진이 진행됐다. 회원들은 지난 1년간 추진한 교육과 현장활동, 기술교류, 조직활동 등을 직접 소개하며 다른 연구회의 경험을 나눴다. 외부 전문가들은 활동 성과와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연구회 3곳을 선정했다.

대상은 농촌체험교육관광연구회(회장 김경희), 최우수상은 블루베리연구회(회장 나동균), 우수상은 태추단감연구회(회장 허석영)가 받았다. 딸기연구회(회장 소대성)는 인기상에 선정됐다.

30일에는 연구회 활동을 담은 영상을 함께 보고 우수연구회 3곳에 대한 시상과 사례 발표를 진행했다. 행사장에는 각 연구회가 준비한 농산물과 농기자재 등 성과물도 전시해 참석자들이 품목별 활동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학수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처음 연 성과보고회가 씨앗을 뿌린 자리였다면, 올해는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성장한 모습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회원들의 노력을 격려했다.

이어 “회원들의 경험과 지식이 기술로 이어지고 현장에서 실천될 때 정읍 농업의 경쟁력이 된다”며 “기후변화와 농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31개 품목별연구회의 한 해 활동을 돌아보고 농업 현장에서 얻은 기술과 경험을 나누는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사진=정읍시>

산물 시장의 변화 속에서도 배우고 연구하며 함께 성장하는 농업인에게 정읍 농업의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품목별연구회가 현장의

경험과 기술을 나누고 새로운 농업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현장활동, 기술교류, 우수사례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읍=김정진 기자

온누리상품권, 도입 18년 만에 개편

온누리상품권이 도입 18년 만에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중심으로 대폭 개편된다. 내년부터 전통시장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구매할인과 환급을 합쳐 최대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소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전국 어디에서 사용하든 동일하게 적용하던 할인방식을 사용처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이다.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구매할인율은 7%지만 내년부터 5%로 조정한다. 대신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 후 5%를 추가 환급해 총 10%의 혜택을 제공한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주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구매할인 5%만 적용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이 지정 기준도 개편한다. 현재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포 밀집 기준을 시·군·

구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적용해 재정자립도 상위 25% 지역은 30개 이상, 중위 50%는 20개 이상, 하위 25%는 15개 이상으로 조정한다. 가맹점도 중소·영세 점포 중심으로 재편한다. 지방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지역 명소 입장권과 숙박권, 지역쇼핑몰 할인쿠폰 등을 추가로 제공하고 전통시장과 인근 관광지, 골목상권을 연결한 여행상품 개발도 확대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별도 환전이나 카드 발급 없이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을 활용해 전통시장에서 QR 결제를 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한다. 카드 포인트와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골목형상점이 지정기준 정비를 시작으로 차등환급과 지방관광 연계, 민간 플랫폼 협업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가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군산시 평생학습관

다문화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군산시는 오는 7일부터 15일까지 '2026년 군산시 평생학습관 다문화 프로그램 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다문화 교육과정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인과 결혼이민자 등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과정은 △시민참여 분야 1개 강좌(국적취득 면접 대비반-아간) △문화예술 분야 1개 강좌(한국 반찬 만들기) △기초문해 분야 3개 강좌(한국어 처음 배우기 레벨 1 평일·주말반, 읽고 말하는 한국어 레벨2) △직업능력 분야 1개 강좌(다문화 생활·취업 컴퓨터 활용) 등 총 6개 강좌로 구성됐다.

신청 대상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 주민이며, 수강료는 무료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다문화 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육을 비롯해 취업에 필요한 컴퓨터 활용과 생활문화 교육 등 다문화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는 과정으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평생학습정보망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군산시 평생학습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21일까지

‘시정발전 아이디어’ 공모

익산시가 시민의 아이디어를 모아 일상의 변화를 만들고 더 나은 익산의 미래를 함께 그려간다.

익산시는 오는 21일까지 ‘2026년 익산시 시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익산 시정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인구·경제 △문화·관광 △복지·교육 △환경·건설 △공공무원 제언 등 5개 분야로,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제안서는 전자우편으로 보내거나 익산시청 기획예산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 계속성, 적용 범위, 노력도 등을 기준으로 두 차례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을 선정하고, 결과는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우수 제안에는 금상 1명 200만 원, 은상 1명 100만 원, 동상 2명 각 50만 원, 장려상 3명 각 30만 원을 지급한다. 노력제안에도 10만 원을 지급한다.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제출 방법 등은 익산시 기획예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공연부터 유공자 표창까지 정읍시, 노인의 날 행사 성료

정읍시에서 열린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 행사에서 모범 노인과 노인복지 유공자 16명이 표창을 받았다.

시는 1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주관으로 기념행사를 열었다.

2일 노인의 날과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지역사회 발전에 힘써 온 어르신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한 자리로, 어르신과 노인복지 관계자 등 76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정읍시립국악단의 축하공연으로 시작해 노인강령 낭독, 유공자 표창, 기념사와 축하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이 끝난 뒤에는 읍·면·동 분회별로 점심 식사가 이어졌다.

이날 성공회 이현주 센터장이 대통령상을 받았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상 1명,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 3명, 정읍시장 표창 11명 등 모두 16명의 모범 노인과 노인복지 유공자가 수상했다.

이학수 시장은 “오늘의 정읍을 일구어 오신 어르신들의 헌신과 지혜에 감사드리며, 상을 받으신 분들께도 축하를 전한다”며 “어르신들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돌봄과 일자리, 여가 지원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연 기자

가을에도 ‘꿀잼도시’ 익산으로 2(題)

신흥공원, 야외 영화관으로 변신

익산 신흥공원에서 영화와 다양한 체험을 함께 즐기는 가을밤 문화행사가 열린다.

익산시는 오는 4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신흥공원 주차장 일원에서 가을 야외 영화제 ‘개봉박두! 신흥시네마’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흥공원을 활용한 야간 문화관광 콘텐츠를 선보이고,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사업과 연계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즐기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반려동물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후 4시부터 스탬프투어를 비롯해 별빛 랜턴·리스 만들기, 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스탬프투어를 완료한 참가자에게는 팜콘을 제공한다.

체험 프로그램 참가비는

1인당 5,000원이며 체험 프로그램 이용권과 푸드트럭 이용권이 포함된다.

사전 신청자를 우선으로 하며 잔여 인원에 한해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오후 6시 30분부터는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와 협업해 영화 ‘멍뭉이’를 상영한다.

영화 상영에 앞서 시민과 관광객이 반려동물 또는 가족·친구와 함께한 일상을 직접 촬영한 영상도 같은 스크린을 통해 선보인다.

영화는 별도 사전 신청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관람 공간은 반려동물 동반 여부에 따라 반려인존과 비반려인존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야간 관광 콘텐츠를 확대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공원을 이용하며 서로 배려하는 반려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 참여형 ‘놀이 한마당’ 열려

배재왕도 익산의 고도(古都) 금마에서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놀이 한마당이 펼쳐진다.

익산시는 개천절 연휴인 오는 3~4일 이틀간 금마면 선화공원 일원에서 ‘고도(古都) 금마에서 즐기는 꿀잼도시 익산’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와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가 추진하는 시민 주도형 문화도시 사업 ‘문화도시 삼삼오오’의 고도화 사업으로 마련됐다.

지난해 ‘익산 꿀잼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시민들이

이 기획해 호응을 얻은 프로그램을 한층 발전시켜 선보이는 자리로, 행사 기획부터 현장 운영까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다.

행사는 이틀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지역 무형유산 공개행사로 꾸며진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고구마를 높이 쌓는 ‘답치GO 고마가자!’ △답 분장을 하고 외밭로 오래 버티는 ‘답벤져스! 최강의 답을 찾아라’ △고구마와 마를 활용한 ‘마구마구 컬링대회’ 등이 마련돼 방문객들이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며 즐길 수 있다.

지역 무형유산 공개행사도 함께 펼쳐진다. 3일 오전 11시에는 마을의 농기를 앞세워 화합을 다지던 전통 놀이 ‘기세배’가, 오후 3시 30분에는 ‘익산성당포구농악’이 무대에 오른다.

4일 오후 2시에는 지게 목발을 두드리며 부르던 노동요 ‘익산목발노래’ 공연이 이어진다.

박성일 익산시 문화유산과장은 “개천절 연휴 백제고도 금마에서 시민이 만든 놀이와 익산의 무형유산을 함께 즐겨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 당부

20종 재산 정보통합조회

군산시는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 등의 재산 정보를 한 번의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지난 9월 11일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유가족의 별도 신청 없이도 사망신고 접수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직접 참여하며 즐길 수 있다.

지역 무형유산 공개행사도 함께 펼쳐진다. 3일 오전 11시에는 마을의 농기를 앞세워 화합을 다지던 전통 놀이 ‘기세배’가, 오후 3시 30분에는 ‘익산성당포구농악’이 무대에 오른다.

4일 오후 2시에는 지게 목발을 두드리며 부르던 노동요 ‘익산목발노래’ 공연이 이어진다.

박성일 익산시 문화유산과장은 “개천절 연휴 백제고도 금마에서 시민이 만든 놀이와 익산의 무형유산을 함께 즐겨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시, 민관 협력 먹거리 정책 강화

푸드플랜 발전 방향 논의

익산시가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간다.

시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익산시 먹거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위원회 활동과 푸드플랜 주요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먹거리위원회는 농업인 단체·시민 단체·교육 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기구다. 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정책기획분과와 정책실행분

과를 중심으로 먹거리종합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과 50개 세부사업의 추진 현황, 성과지표 등을 점검하며 푸드플랜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위원회 활동 현황과 푸드플랜 주요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이어 제2기 먹거리위원회 향후 운영 방향과 먹거리 정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앞으로도 먹거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시민사회, 전문가, 행정이 함께 먹거리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학교와 가정 잇는 기후교육 첫걸음

탄소중립 실천 방안 공유

정읍시환경교육센터가 교사 연수를 시작으로 학교와 가정이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교육에 나섰다.

센터는 지난달 28일 소성초등학교 과학실에서 관내 교사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학부모·교사 연계 환경교육 모델 구축’ 사업의 첫 교사 연수를 열었다.

연수는 ‘기후위기 시대의 학교 교육-교사가 여는 질문, 수업, 학교의 변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기후교육 방법과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공유하고, 학생들이 환경 문제를 생활과 연결해 배울 수 있는 수업을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이번 사업은 정읍시 환경교육 시범사업으로, 11월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 20여 곳에서 교사와 학부모 등 33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를 통해 교실에서 배운 내용을 가정의 실천으로 잇고, 학교별 여건에 맞는 탄소중립 활동을 찾아갈 계획이다.

정읍시환경교육센터 관계자는 “학교 기후교육의 변화는 교사의 생각과 질문에서 시작된다”며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현장에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연 기자

군산시, 지역 학생 해양레저 체험 기회 확대

군산시가 군산교육지원청, 무너도 오션팔레트와 손잡고 지역 학생들을 위한 해양레저 학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해양레저 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해양 안전 지식까지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오션팔레트 내 서핑장과 잠수풀에서 진행된다.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서핑 및 잠수 체험 등 해양레저 실습은 물론 심폐소생술(CPR)과 응급처치 등 해양활동 사고 대비 안전교육을 병행해 응급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대처 방법도 익힐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의 참여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생 단체 특별할인 요금이 적용된다. 잠수 체험은 정상이 대비 50%(7만 5,000원/인), 서핑 체험은 정상이 대비 60%(3만 원/인)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된다. 또한, 모든 교육 과정에는 전문 강사와 안전요원을 배치해 안전한 체험 활동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성공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개



<사진=군산시>

기관이 역할을 분담했다. 군산시는 학생들이 지역의 해양레저 시설을 이용해 교육 및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군산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한 안내와 홍보를 담당한다.

운영사인 오션팔레트는 시설과 전문 인력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학생들의 해양레저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우수한 지역 해양레저 인프라의 활용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합동평가 부진지표 대응 ‘총력’

최상위권 도약 위한

3차 추진상황 점검

정읍시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앞두고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부진 지표의 원인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시는 지난달 30일 구절초회의실에서 유호연 부시장 주재로 ‘2027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정량지표 3차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2026년 추진 실적 평가받는 이번 합동평가에 대비해 부서별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의 실적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

와 관계 중앙부처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국가시책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시는 평가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관련 사업의 성과가 시민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담당 부서장들은 지난해 목표에 미치지 못한 지표와 올해 새로 추가된 지표, 중점관리 지표 등 11개의 추진 상황을 살폈다. 지표별 실적이 부진한 원인을 분석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부서 간 협조 사항도 논의했다.

특히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 실적 △임도 시설 실적을 △혁신 구매 목표 달성 실적 △빈집 정비사업 등 실적 관

리가 필요한 지표를 집중 점검했다. 각 부서는 사업 추진 과정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남은 기간 실적을 높일 방안을 검토했다.

시는 올해 정량지표 68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8월 말 기준 44개 지표가 목표 달성을 했다. 연말 평가 마감까지 목표 달성이 어려운 지표는 부진 원인을 다시 살피고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실적을 높일 계획이다.

유호연 부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우리 시의 행정 역량을 평가받는 중요한 기회”라며 “모든 부서가 책임감을 갖고 지표별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목표 달성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정연 기자

“나의 아이디어가 군산의 정책으로”

30일까지 시민 제안

공모전 개최

군산가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발전시키고 시민 참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2026년 시민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이 직접 일상에서 느낀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에 꼭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에는 제한이 없으며, 시정 전반에 관한 정책 아이디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군산시민은 물론 군산에서 통근·통학하거나 정기적으로 체류하는 생활인구도 참여할 수 있다.

익산시는 이달부터 통합돌봄 대상자

접수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한다. 온라인 접수는 군산시 누리집,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 네이버폼(https://naver.me/5RAXn8At) 또는 전자우편(ojo19958@korea.kr)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접수는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안서 양식은 군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우편 접수는 마감일 발송분까지 인정되며, 방문 및 온라인 접수는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제안은 내부 검토와 군산시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시장 표

창과 함께 부상으로 군산사랑상품권을 수여한다. 시상 규모는 △최우수상 1명(100만 원) △우수상 2명(각 50만 원) △장려상 5명(각 10만 원)이다. 심사 결과는 12월 중 군산시 누리집에 게시하고 수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이번 공모전은 시정의 주체인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제안과 제안자의 이름을 함께 기록하는 공모전”이라며 “시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연결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군산시청 기획예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최대 77%… 의원 4곳

한의원 26곳 참여

익산시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살던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익산시는 이달부터 통합돌봄 대상자

부담금의 최대 77%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된 65세 이상 고령자와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이다. 지원 한도는 1인당 월 최대 5만 원, 연간 최대 60만 원이다.

시는 방문진료를 위해 지역 의원 4곳, 한의원 26곳과 협약을 맺고 통합돌봄과 지역 의료기관을 연계한다. 대상자는 참여 의료기관 가운데 원하는 곳을 선택해

가정에서 방문진료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돌봄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 강화 2(題)

남원시, 장애인주거시설 공모 선정 국비 2억 확보

남원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7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2억3천5백만원을 확보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지난 3년 동안 시설 종사자와 거주인, 그리고 남원시가 함께 뜻을 모아 이뤄낸 값진 결실이다. 특히 올해만 도청을 두 차례 직접 방문해 시설 노후화된 현황과 공간 재배치 필요성을 전달했고 전북도 관계자들의 꼼꼼한 현장 실사를 거쳐 마침내 9월 22일 최종 확정 기쁨을 안게 됐다.

이번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편한세상은 기존 4인 거주시설을 2인 거주시설로 변경해 거주인 개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더욱 쾌적하고 안

전하게 생활실을 리모델링하게 된다. 아울러 기존의 다소 불편했던 공간 구조를 개선하여 진료실,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상담실 등 핵심지원공간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전문적인 의료·재활 서비스와 따뜻한 상담이 더욱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공간을 새롭게 단장할 예정이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이번 국비 확보는 거주인들의 건강 증진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통합복지 모델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장애인과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지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주거취약 가구에 공모 연계 임차자금 지원

완주군 삼례읍 행정복지센터와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가 손을 맞잡고 주거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안정을 위한 든든한 보금자리 지원에 나섰다.

최근 양 기관은 삼례읍에서 '2026년 민·관 협력 무주택 임차자금 전달식'을 열고 지원 대상 가구에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후원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무주택 취약계층 주거안정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임차자금 지원 공모사업'과 연계해 마련했다.

삼례읍 맞춤형복지팀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연계하고, 완주군

사회복지협의회가 뜻을 모아 지원을 뒷받침하는 모범적인 민·관 협력 모델로 진행했다.

선정 가구에는 가구당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주택 임차자금을 전달해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임평화 회장은 "이번 임차자금 지원은 민과 관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여 주거 위기에 처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뜻깊은 사례"라고 밝혔다.

임동빈 삼례읍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민·관협력력을 통하여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소외된 주민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보훈회관 개관...국가유공자 복지 거점

8개 보훈단체 한 공간서 교류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쉽터 기능

순창군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과 보훈단체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보훈회관을 새롭게 마련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군은 1일 보훈회관에서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오수환 순창군의회의장과 군의원, 장승필 도의원, 김상희 전북동부보훈지청장, 이정린 전북도 정책협력관, 보훈단체 관계자와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번 보훈회관 건립은 기존 시설의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인한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분산돼 있던 보훈단체의 안정적인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됐다.

총사업비 25억 7,200만원이 투입된



<사진=순창군>

보훈회관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쉽터 기능과 함께 지역 내 8개 보훈단체가 한 공간에서 교류하고 화합할 수 있는 보훈활동의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군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각종 보훈 활동과 교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시설 조성에 중점을 뒀다.

최영일 군수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보훈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 와일드푸드축제, 야생의 맛·멋 펼친다

고산자연휴양림서 2~4일 개최
야생 채취·로컬 미식 '종합함'

대한민국 대표 이색 축제로 자리 잡은 '제14회 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가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군과 와일드&로컬푸드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불타오르는 거친 야생'을 표어로 내걸고, 청정 자연 속 원시적 감성을 깨우는 야생 채취와 건강한 로컬푸드의 진수를 다채롭게 선보인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분야는 고산자연휴양림의 자연환경을 살린 맞춤형 '와일드 체험'이다. 시랑천 일원에서는 맨손 물고기 잡기와 메뚜기 잡기, 수상 패들보드(SUP), 워터틀러 등 수상 체험을 운영한다. 여기에 대장간 체험과 장작

패기 등을 경험하는 '로컬 부시크래프트존', 전통 감자삼국을 재현한 '불타는 화덕존', 나무와 밧줄을 활용한 18종의 '트리 엑스트림', 벗짚 미끄럼틀을 갖춘 '와일드놀이터'를 조성했다.

'로컬푸드 1번지' 완주의 특색을 살린 먹거리도 풍성하다. 13개 읍·면 주민들이 손수 차려내는 '로컬밥상'과 계절 농특산물을 만나는 '로컬장터'를 비롯해 로컬 식재료 퓨전 요리와 지역 전통주를 선보이는 '미식관광존'을 운영한다. 완주 한우와 신선한 찜제소를 현장에서 구워 먹는 이동식 정육점과 특색 있는 먹거리 포차도 미식가들의 입맛을 돋운다. 특히 3일 오후에는 유명 요리유튜버 '정육왕'이 참여하는 한돈 해체쇼와 바비큐 나눔 행사를 진행하며 '완주 9품 깎깍 경매' 등 방문객 참여 행사도 수시로 열린다.

지역 주민과 체육 동호인이 함께하는 연계 행사도 다채롭다. '2026 완주 트레일런 대회'와 노르딕워킹 대회,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읍면 신바람 체조대회, 주민참여 공연이 축제장을 활기로 채운다.

이번 축제는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연계 행사도 풍성하게 준비됐다. '2026 완주 트레일런 대회'와 '노르딕워킹 대회',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13개 읍·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신바람 체조대회, 다함께 더불어 주민공원이 제도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한다. 아울러 '완주로컬굿즈스토어'도 운영된다.

또한 올해 축제에서는 관람객 편의를 위해 축제장 전 구역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해, 누구나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하며 축제를 더욱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 흥부제, 먹거리·농특산물 장터 '활짝'

흥부전 속 '박' 활용 이색 먹거리
농산물·가공품·공예품·체험 다채

남원시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되는 제34회 흥부제에서 지역의 맛과 '맛'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먹거리·농특산물 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요전번 월곡광장 일원에 마련되는 '제비상생존'에서는 먹거리부와 농·특산물 판매부스를 함께 운영한다.

지역 업체들이 참여해 다양한 음식을 선보이며, 흥부 이야기 속 '박'을 활용한 박고지전 등 축제의 이야기를 담은 먹거리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사인머스켓 등 신선 농산물을 비롯해 부각, 누룽지, 강정 등 다양한 가공식품과 옷걸이 생활용품, 자개·목공예품 등 남원의 특색을 담은 상품을 선보여 먹거리와 쇼핑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한다.

더불어 '흥부체험존'에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푸드트럭을 운영한다. 축제장을 찾은 가족 단위 방문객과 관광객들이 체험을 즐기면서 간편하게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제비상생존과 흥부체험존을 중심으로 먹거리와 농·특산물, 체험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축제 공간을 조성하고, 위생·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세외수입 우수사례 전북 '최우수'

도대표 지방재정대상 본선행
공공시설 사용료 정비 등 호평

완주군이 공공시설 운영 혁신을 통한 세입 확충 성과를 인정받아 전북 최우수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군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6년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하며, 전북 대표로 행정안전부 주관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됐다.

이번 수상은 장기간 동결됐던 공공시설 사용료와 수수료료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파크골프장 직영·유료화 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신규 세입 기반을 다진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군은 가족보노 공공처리시설 처리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현실화율을 기존 19%에서 48%까지



끌어올렸으며, 오랜 기간 묶여 있던 체육시설 사용료도 합리적으로 손질했다.

여기에 파크골프장 직영화 및 유료화 전환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지속 가능한 경상세외수입원을 확보했다. 단순한 사용료 인상에 그치지 않고 공공시설 운영 전반을 혁신해 항구적인 세수 증대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이 주효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수상은 관행 답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려 한 적극 행정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로봇·드론·코딩 경진대회 G-PRC 개최

전북·전남 초등생 300여명 참가
흥부제 기간 6개 종목 예선전

남원시는 오는 9일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실내체육관에서 민간 주최 로봇·드론 경진대회인 '2026 G-PRC 남원 대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G-PRC'(Global Pro Robot Championship)는 로봇·드론·코딩 분야의 미래인재 발굴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해 열리는 경진대회로, 지역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이력스가 주최하고 (유)드림에듀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라 2지역 예선으로 열린다. 전북·전남 지역 초등학생 선수 300여 명을 비롯해 학부모와 관계자 등 800여 명이 남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 선수들은 스피드 드론과 코딩 등 6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며, 남원 지역 학생 80여 명도 선수로 참가한다.

특히 대회가 9일부터 11일까지 흥부제 기간에 개최되는 만큼 선수와 가족 등 방문객의 지역 내 체류와 축제·관광 참여가 숙박·음식점 등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회 현장에서는 흥부제와 남원관광 홍보도 함께 진행된다.

대회와 연계한 '찾아가는 드론교실'도 남원시가 운영한다. 대회장 주변에 체험 공간을 마련해 선수와 학부모, 시민 등이 드론과 로봇을 직접 조종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유소년과 방문객에게 미래기술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중앙·도 평가 대응 추진상황 점검

순창군은 지난달 30일 군정 2층 영상회의실에서 '2026년 중앙·도 평가 대응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개최하고, 부서별 대응 상황과 미흡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중앙부처와 전북특별자치도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평가별 추진상황을 사전에 점검해 실제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고회는 조광희 부군수 주재로 진행됐으며,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들이 참석해 대응 평가별 추진상황과 미흡사항, 향후 보완계획 등을 보고했다.

특히 이번 보고회에서는 단순 실적 확인에 그치지 않고, 평가 항목별 추

진상황을 점검하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이를 통해 부서별 대응력을 높이고, 향후 자료 제출과 현장평가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했다.

군은 각종 대외평가가 행정서비스 수준과 정책 추진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지표인 만큼, 평가 결과에 군정 신뢰도 향상과 군민 체감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조광희 순창부군수는 "부서별 추진상황을 면밀히 살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가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소방서, '무대본·실전형' 긴급구조종합훈련

완주소방서(서장 이경승)는 1일 봉동중앙교회에서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비한 '2026년 실전형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대형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종합대응 중심의 현장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통합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완주소방서를 비롯한 15개 기관·단체 200여 명과 소방차 등 장비 40여 대가 동원돼 실제 대형재난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훈련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훈련은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는 일률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세부 대응 절차를 정하지 않는 '무대본 훈련' 방식으로 진행됐다.

훈련은 충남 금산군 남쪽 3km 지점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해 지상

5층, 연면적 약 6,391㎡ 규모의 봉동중앙교회 건물 일부가 붕괴되고 화재가 발생하면서 30명의 다수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다. 재난 발생 직후 초기 화재진압과 인명감색·구조를 시작으로 재난 규모 확대에 따른 긴급구조종합대응 가동, 다수사상자 대응, 유관기관 지원 요청과 자원 배치, 재난 수습에 이르기까지 실제 대응 과정에 맞춰 전개됐다.

소방기관에서는 완주소방서를 비롯해 호남119특수구조대가 구조견을 투입해 붕괴 건축물 내 구조조자를 탐색하는 등 전문 구조역량을 활용한 인명감색·구조 활동을 펼쳤다.

이경승 완주소방서장은 "앞으로도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지속해 어떠한 재난에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왕우렁이 일제 수거 및
유통 관리 추진

순창군이 친환경 제조용으로 활용된 왕우렁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자연 생태계로의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왕우렁이 전국 일제 수거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일제 수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왕우렁이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되며, 벼 수확이 끝난 농경지에 남아 있는 왕우렁이를 집중적으로 수거해 생태계 유출을 방지하고 이듬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왕우렁이 농법은 잡초 제거에 효과적인 뿐만 아니라 농약 사용량과 제조 작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줄일 수 있어 친환경 벼 재배 농가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다만 수확 이후 왕우렁이를 제대로 수거·관리하지 않을 경우 농경지 주변으로 확산돼 다른 농작물에 피해를 주거나 자연 생태계로 유출돼 토종 생물의 서식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철저한 사후 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군은 일제 수거기간 동안 농경지에 남아 있는 왕우렁이를 적극 수거하는 한편, 농가를 대상으로 유통 방지를 위한 단계별 관리 요령을 안내하고 현장 실전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내년 1월부터 2월 사이 겨울철 심경작업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논을 깊게 갈아엎는 심경작업을 통해 토양 속에서 월동할 가능성이 있는 왕우렁이의 생존율을 낮추고 이듬해 농경지로 재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미래행복센터
아동친화도시 체험단 성료

완주군 미래행복센터가 운영한 '완주미래행복 아동친화도시 체험단'이 총 3회차 프로그램을 모두 마쳤다.

이번 체험단은 완주군의 우수한 아동친화 환경과 돌봄 생태계를 널리 알리고, 지역 내 다양한 교육·돌봄 자원을 직접 체험하며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기반을 다지고자 운영했다.

1회차에서는 '함께 키우는 관계의 맛·공동육아 맛보기'를 주제로 완주 공동육아 공동체 '술가락'의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완주를 비롯해 전주, 익산, 충남 홍성 등지에서 모인 부모들은 공동육아의 태동 배경과 10여 년간 쌓아온 실천 경험, 자연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성장해 온 이야기들 심도 있게 나눴다.

이어 열린 2·3회차에서는 아동친화도시와 돌봄, 부모 공동체, 일자리 등을 폭넓게 다루며 참가자 간 소통의 폭을 넓혔다. 참가자들은 식사를 함께하며 육아 경험과 정착 이야기를 허심탄화하게 나눴고, 원주민과 이주민 가족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끈끈한 유대감을 쌓았다. 센터는 향후 가족캠프와 문화행사 등을 마련해 참여자 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가족사진 공모전
수상작 20점 선정 시상 진행

남원시가 가족의 소중한 순간과 행복한 일상을 공유하는 '소소한 일상, 든든한 동행' 제10회 남원시 가족사진 공모전의 수상작을 최종 선정하고 시상식을 진행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이번 공모전은 출산·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9일까지 남원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가족과 함께한 일상 속 소소한 순간 특별한 순간을 담은 사진을 접수했다.

공모 결과 접수된 다수의 작품 중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총 20점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수상 규모는 △행복상 1점 △가족상 2점 △화목상 7점 △미소상 10점으로,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최대 100만원 상당의 남원시상품권이 수여됐다.

남원시는 이번 공모전 수상작을 다양한 출산·가족 친화 정책 홍보에 활용해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해 아이와 가족이 행복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익산지회 뜻 모아 이웃사랑 실천

익산지역 공인중개사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뜻을 모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익산시는 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익산지회'가 시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남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익산지회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의 뜻을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익산지회는 지역 내 400여 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된 단체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지역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매년 성금 기탁과 봉사활동에도 힘써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고창 부안면 질마재푸드 취약계층에 유기농 쌀과자 기탁

고창군 부안면 소재의 질마재푸드(대표 주재만·주지은)는 지난달 30일 부안면 주민행복센터에 취약계층을 위한 유기농 쌀과자 59박스(2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이번에 기부한 쌀과자는 질마재푸드에서 정성껏 생산한 유기농 쌀을 활용해 만든 제품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나누고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관내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 등에 골고루 전달될 예정이다.

질마재푸드 관계자는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지역사회에 다시 나누고 싶어 이번 기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세림종합관리, 익산 취약계층에 방역서비스 지원

황등면 취약계층 100가구에 해충세균 방제

익산시 황등면 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지역 방역업체가 전문성을 살린 나눔에 나섰다.

황등면은 '세림종합관리(대표 김혜정)'가 이달 한 달간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방역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황등면 58개 마을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100가구로, 각 마을 이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이번 지원은 해충 피해와 감염

병을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방역 인력이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해충 박멸과 세균 방제 등 방역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황등면에 있는 세림종합관리는 해충 방역과 소독을 전문으로 하는 여성기업으로, 건물위생관리와 소독, 소독약품 판매 등 위생·방역 분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황등면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 29일 세림종합관리와 무료 방역서비스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황등면은 '세림종합관리'가 이달 한 달간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방역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익산시>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 한자 자격시험 5명 합격

꾸준한 배움과 도전의 결실

김제시는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승택) 이용자가 5명이 한국한자실력평가원에서 주최한 제125회 한자실력급수 자격시험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격 현황은 준3급 1명, 5급 2명, 7급 1명, 8급 1명으로, 다양한 급수에서 합격의 결실을 맺었다. 이번 시험은 지난 8월 22일 시행됐으며, 합격 결과는 9월 17일 발표했다.

이번 성과는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2017년부터 지속해 온 한자 자격시험 지원사업의 결실이다.

복지관은 자격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이용자에게 응시료를 지원하고, 시험 접수부터 준비 과정까지 세심하게 지원하며 자격취득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왔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배움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김제=윤봉기 기자



완주 고산농협 송현선박기철 부부 '새농민상' 수상

농협중앙회 완주군지부(지부장 원천연)는 지난달 30일 완주군지부에서 2026년 9월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인 고산농협 조합원 송현선·박기철 부부에게 상패를 전달했다.

송현선·박기철 부부는 '돈월드 딸기농장'을 운영하며 자립·과학·협동의 새농민운동 정신을 실천하고, 농업 현장에서 꾸준한 영농활동을 통해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9월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날 수여식에는 원천연 완주군지부장을 비롯해 완주군지부 및 고산농협 관계자, 완주군 새농민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수상을 축하했으며, 간담회와 함께 상패 전달 및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원천연 완주군지부장은 "앞으로도 완주 농업을 이끌어가는 선도농업인으로서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고창원광어린이집, 시장놀이수익금 장학금 기탁

고창원광어린이집(원장 김공임)이 지난달 30일 오전 고창군장학재단을 찾아 고창인재키우기 장학금 5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금은 원광어린이집 원생들이 직접 참여한 시장놀이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으로, 아이들이 놀이와 체험을 통해 나눔의 의미를 배우고 그 결실을 지역사회를 위해 기부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김공임 원장과

어린이집 원생들이 함께 참석해 지역의 형·누나들이 꿈을 키워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김공임 원장은 "아이들이 시장놀이를 통해 함께 나누는 기쁨과 의미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아이들의 작은 정성이 고창의 인재들이 꿈을 펼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민원과 직원들 장학금 '1군민 1후원계좌' 동참

(제)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은 부안군 민원과 직원들이 근농인재육성장학금 1군민 1후원계좌 갖기 홍보 릴레이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민원과를 찾아 캠페인의 취지와 후원 혜택을 안내하고, 군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부서인 만큼 지역에 나눔의 분위기를 넓히는 마중물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직원들은 흔쾌히 후원 가입에 나서며 릴레이의 한 자리를 채웠다.

'1군민 1후원계좌 갖기'는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후원 계좌를 하나씩 갖고 지역 학생들의 배움을 함께 돕자는 취지의 캠페인이다.

이날 민원실 창구 앞에 모인 직원들은 '1만 원의 기적', '등록금 걱정은 반으로, 꿈은 두 배로'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힘차게 주먹을 들어 올리며 후원 릴레이 동참 의지를 다졌다.

/부안=신상수 기자



완주 소양면 철쭉봉사단 10년째 쌀 나눔

완주군 소양면 철쭉봉사단(단장 정귀녀)이 소양면 내 취약계층 이웃들을 위해 백미 50포를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기탁된 쌀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와 홀몸 어르신 등 도움이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됐다.

철쭉봉사단은 지난 2016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쌀 나눔을 이어오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정귀녀 단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의 든든한 한 끼 식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변을 세심히 살피며 이웃사랑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귀순 소양면장은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변함없는 나눔을 실천해 준 철쭉봉사단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보내주시 소중한 쌀은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정성을 담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일상속 온실가스 줄이는 방법

01
적당한
냉방/난방 온도
유지하기

02
비닐봉투 대신
에코백, 장바구니
사용 하기

03
걸거나
대중교통
이용하기

04
에너지 절약하기

〈一事一言〉



‘유령 부스’가 던진 질문, 메가어스 엑스포 성과 제대로 공개하라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일부 빈 부스·참가기업 숫자 제각각
…MOU보다 실제 실적 밝혀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 등이 도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한 ‘메가어스 엑스포’를 둘러싸고 행사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 해외 판로 개척이라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문제는 도민 세금이 투입된 만큼 실제 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됐느냐는 것이다.

본지 취재진이 행사 현장을 확인한 당시 일부 부스는 참가자가 자리를 비웠거나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모습이었다. 기업과 바이어가 활발하게 상담해야 할 박람회장에서 이른바 ‘유령 부스’가 눈에 띄었다면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더욱이 전북지역 기업에는 부스와 통역, 비즈니스 매칭 등을 위해 기업당 최대 700만 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지원 목적이 기업의 실질적인 수출과 판로 개척인 만큼 성과 역시 구체적으로 검증돼야 한다.

공식 자료에 나타난 숫자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메가어스 측은 2025년 행사 성과로 바이어·참관객 8,500명, 기업 전시 250개, MOU 315건, 비즈니스 매칭 1,800건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행사 소개 자료에는 200개 기업·180개 부스 규모로 소개돼 있고, 당시 전북도 보도자료에는 한국과 베트남 스타트업 150

여 개사가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집계 시점이나 기준이 달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곧바로 실적 부풀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왜 숫자가 서로 다른지, 최종 참여기업과 실제 운영 부스가 몇 곳이었는지는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MOU 몇 건’이라는 숫자 뒤에 실제로 무엇이 남았느냐는 점이다. 박람회 성과는 상담 건수나 MOU 체결 숫자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상담이 실제 계약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계약 가운데 실제 수출이 이뤄진 금액은 얼마인지, 참가기업들이 이후에도 현지 거래처와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그래야 행사가 기업 지원사업인지, 단순한 실적 홍보용 이벤트인지 판단할 수 있다.

전북도와 관계기관은 이번 기회에 메가어스 엑스포에 투입된 예산과 지원기업 수, 실제 참가기업과 운영 부스, 바이어 상담 건수, MOU, 계약액과 실제 수출액을 구분해 공개해야 한다. 특히 MOU와 상담 실적을 실제 매출이나 수출 성과 처럼 포장해서는 안 된다. 행사 종료 뒤 6개월, 1년 단위로 후속 성과까지 추적해 도민에게 공개하는 사후평가 시스템도 필요하다.

이는 메가어스 엑스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자체가 기업 지원을 명분으로 국내외 박람회와 전시회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성과 평가는 참가기업 수와 상담 건수, MOU 실적에 머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행사를 열고 사진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매출과 수출, 투자로 얼마나 연결됐는지 중요하다.

기업 역시 행정기관의 행사 실적을 채우기 위한 ‘숫자’가 돼서는 안 된다. 해외 판로를 뚫기 위해 시간과 인력을 투입한 기업에 필요한 것은 화려한 개막식이나 부스 숫자가 아니라 제대로 된 바이어와 실제 계약이다.

‘유령 부스’가 있었다는 현장의 모습은 그래서 가뭇게 널길 일이 아니다. 그것이 일부의 일시적인 현상이었는지, 아니면 행사 운영과 기업 모집 과정의 구조적인 문제였는지 전북도가 자료로 답하면 된다.

성과가 있었다면 있는 그대로 공개하면 된다. 부족했다면 원인을 밝히고 다음 사업에서 고치면 된다. 도민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성과 숫자가 아니라 세금 한 톨이 기업의 성장과 수출에 얼마나 보탬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이다.

메가어스 엑스포의 성패를 가르는 숫자는 ‘부스 몇 개, MOU 몇 건’이 아니다. 그 가운데 실제 계약은 몇 건이고, 실제 수출로 이어진 돈은 얼마인가. 전북도와 관계기관이 이제 그 질문에 답해야 한다.

ㅣ기고ㅣ

특정 정당 중심의 행정 넘어, 시의회 전체와의 ‘진정한 협치’로 나아가



지방자치가 꽃피우기 위한 핵심 동력은 ‘건제와 균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협치’입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본연의 역할은 특정 정당의 이익이 아닌, 정읍 시민 전체의 복리와 공정한 행정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읍시와 더불어민주당 정읍지역위원회가 추진하는 ‘당정협의회’ 운영 방식은 이러한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정읍시의회는 전체 의원 중 약 3분의 1이 비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된 다원적 대의기관입니다. 그럼에도 주요 예산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비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가치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첫째, 대의민주주의와 시의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비민주당 의원들을 통해 목소리를 내고자 한 시민들의 뜻도 소중한 민심입니다. 여야를 떠나 시의회의 공식 심의·의결 과정이 더욱 폭넓게 존중될 때 3분의 1에 달하는 시민의 표심도 함께 빛날 수 있습니다.

둘째,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객관적 타당성 확보입니다. 정책 조율 과정에서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이 꼼꼼히 검토되어야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고 신뢰받는 행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시민과의 진정한 소통과 공문화 과정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대형 사업일수록 공식적인 시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 주민 동의를 구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수성동~장평동(구룡동) 간 연결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비용 대비 편익(B/C) 수치가 0.43에 불과해 경제성이 크게 부족함에도, 제대로 된 검증이나 시민과의 소통 없이 진행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땀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정읍시는 특정 정당만의 지자체가 아니며, 시의회 역시 특정 정당의 하루 조식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정당을 넘어 시의회라는 공식적인 틀 안에서 모든 의원과 지혜를 모으고, 시민설명회 등을 통해 더 많은 목소리를 경청하며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정읍시의회 의장 이복형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주시 ‘원스텝 건축 인허가’, 시민 체감 행정으로 정착시켜야

전주시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반복되는 보완 요구와 부서 간 협의 지연을 줄이기 위해 ‘원스텝 건축 인허가 처리’를 시행하기로 한 것은 반길 일이다. 복잡하고 더딘 인허가 절차로 시민과 기업이 겪어온 불편과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 행정 편의가 아닌 민원인 중심으로 업무 방식을 바꾸겠다는 점에서 제대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건축 인허가는 여러 부서와 관련 법령이 얽혀 있어 대표적인 복합민원으로 꼽힌다. 건축부서의 보완 요구를 처리하고 나면 다른 부서에서 또 다시 보완을 요구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민원인은 언제 허가가 날지 예측하기 어려웠다. 특히 사업자에게 인허가 지연은 단순한 시간 문제가 아니다. 착공과 분양 일정이 늦어지고 금융비용이 늘어 결국 전체 사업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주시의 원스텝 방식은 관계 부서가 초기 단계부터 검토에 참여해 보완사항을 한꺼번에 취합하고 반복 보완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원인이 부서를 찾아다니며 행정기관 내부의 협의까지 떠안았던 관행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정 내부에서 해결할 일은 행정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심사기준 완화나 부실 검토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건축 인허가에는 안전과 도시계획, 교통, 환경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가 포함돼 있다. 줄여야 할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검토 절차가 아니라 부서 간 칸막이와 중복 검토, 낙장 협의 같은 행정 비효율이다. 속도와 원칙을 동시에 지켜야 제도의 신뢰도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제도의 성패는 시행 자체가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평가해야 한다. 전주시는 시행 전후 평균 인허가 처리기간과 보완 횟수, 법정 처리기간 준수율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얼마나 빨라졌고 반복 보완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수치로 보여줘야 한다.

이번 제도가 건축 분야에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 성과가 확인된다면 각종 개발행위와 기업 인허가 등 복합민원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시민에게 빠르고 정확한 행정은 그 자체로 경쟁력이다. 전주시의 원스텝 건축 인허가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낡은 행정 관행을 바꾸는 시민 체감형 혁신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오늘의시

강으로 가서 꽃이여 / 김 사 인

이마에 손을 얹고 꽃이여
이마에 여원 손 얹고 꽃이여
어둡게 흘러가는 강가로 가서
어린 자갈들은 추위에 입술 파랗고
늙은 여귀때 거친 종아리
강으로 가서 우리는
강으로 가서
다만 강물을 보자
하늘엔 찬 별도 총총하리
시든 풀의 굵은 등엔 서리가 희리
취한 듯 슬픔인 듯 강으로 가서
다만 묵묵히 강물을 보자
이마에 손 얹고 꽃이여

시인 약력 : 1956년 충북 보은 출생. 서울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시절 대학신문에 ‘戀詩’를 위한 이미지 연습, ‘밤 지내거’ 등의 시를 발표했다. 1982년 ‘시와 경제’에 동인으로 참가하면서 시를 쓰기 시작했다. 이후 시인으로, 평론가로 등단하고 민중문학 진영의 이론가로 활동했다. 조정한, 박노해와 함께 ‘노동해방문학’을 창간하고 발행인이 됐다. 1987년 첫 시집 ‘밤에쓰는 편지’를 펴냈다.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전북신문 444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별관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양지사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전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을 읽는 가장 바른 시선, 전북타임스"

https://www.jeonbuktimes.co.kr

광고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0~3

매주 토요일 거리 퍼레이드 남원 '신관사또 부임행차' 다시 달린다

거리 퍼레이드·마당극으로 관광객 맞이

남원시의 대표 문화관광 콘텐츠인 '신관사또 부임행차'가 지난 9월 5일 하반기 공연을 시작하며 다시 시민과 관광객들을 맞이했다.

올해 운영 20주년을 맞은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은 조선시대 신임 사또의 부임 행렬을 재현한 남원시의 대표 상설 콘텐츠다. '춘향전'을 재해석한 마당극과 화려한 행렬, 신명나는 댄스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하반기 공연은 가을철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새로운 기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상반기와 새로운 구성으로 진행되어 현장 분위기를 돋웠다. 공연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사랑의 광장에서 광한루원까지 이어지는 거리 퍼레이드로 시작하여 기생과 육방의 춤사위, 사또와 이방의 재치있는 입담으로 관객을 빠져들게 하는 마당극이 오후 4시까지 이어진다.

특히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단이 펼치는 흥겨운 퍼포먼스는 관람객들이 공연의 일부가 되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돼, 남원을 배경으로 한 '춘향전'을 친근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을 통해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과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을 정취가 깊어지는 남원을 찾아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과 함께 남원의 맛과 흥을 직접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시는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을 남원의 대표적인 상설 거리 공연으로 지속 발전시키는 동시에 광한루원 등 지역의 주요 관광자원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